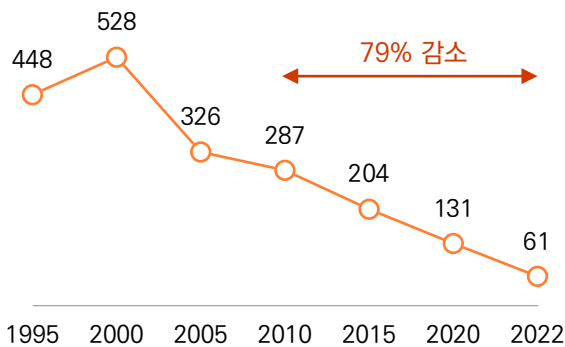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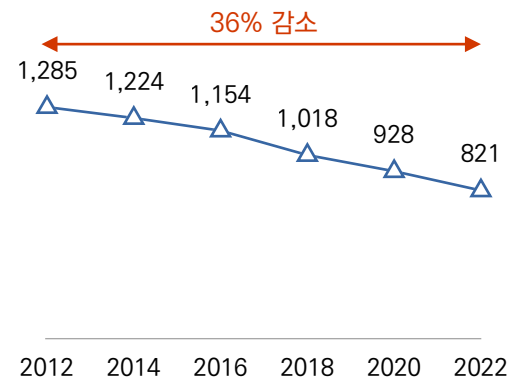
불교 출가자 수, 12년 사이 79% 감소!

- ▶ 저출산과 탈종교 현상 등의 요인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, 불교 역시 해당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.** 이처럼 종교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별 예비 성직자(목사, 신부, 승려)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.
- ▶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(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) 수는 2000년 528명에서 2010년 287명, 2020년 131명, 2022년은 6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. 2022년의 61명은 2010년 대비 79% 감소한 수치이며, 2020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.
- ▶ 천주교의 교구 신학생 수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12년 1,285명에서 2022년 821명으로 10년 새 36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불교 출가자 수 추이 (대한불교조계종 기준, 명)



[그림] 천주교 교구 신학생 수 추이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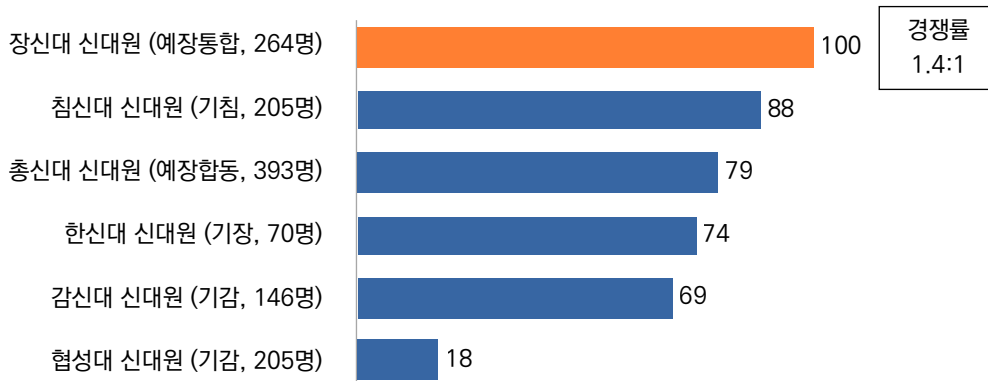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중앙일보, 출가 반토막, 종신대 첫 미달...불교도 기독교도 '종교 절벽' 왜 기사 참조, 2023.10.17. 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9944>)
 **넵버즈 206호의 '종교 인구 분포' 파트 참조

◎ 2023년 한국교회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, 대부분 미달!

- ▶ 개신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총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, '총신대'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장신대 신대원만이 유일하게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넘었으나, 최근 몇 년 사이 신대원 정원을 감축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주요 교단 신대원 신입생 모두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.

[그림]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 (2023년 기준, 정원수, %)



*자료 출처 : 대학알리미, 신입생 총원 현황(대학원) 자료 참조, 2023